

제8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

시상식

일시: 2009년 12월 9일 (수)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제8회 송건호언론상

공동 수상자: 최문순 · 최상재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최문순’ 국회의원과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제8회 송건호언론상’의 공동수상자로 선정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민주주의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우리 사회의 각 영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권력의 변화와 자본의 영향력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며, 언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은 언론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견제할 수단이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 확립’입니다.

2008년 정권 교체 후 미디어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정책은 그 동안 어렵게 성장해 온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기능을 자본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펴면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공공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디어법 개정은 일단 시행이 되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체제가 되어 버립니다. 이는 언론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막으려는 언론운동은 경제 성장의 논리를 앞세우는 여당과 정부의 독주 앞에서 위축된 시민사회세력을 지탱하고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 선 두 수상자의 발자취는 뚜렷합니다.

수상자 최문순 의원은 1984년 ‘문화방송’에 기자로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을 통해 사회문제와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시청자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방송사 노조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파업을 주도했다가 96년 해직된 후 97년 복직하기도 했습니다.

98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제6대 위원장이 된 후,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어렵게 거쳐서 '개별노조'의 동의를 얻으며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추진력으로 '산별노조'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2000년 11월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출범하자 초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언론노조'는 언론운동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토대를 마련하여 언론운동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상자는 99년 2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아 시민단체와 함께 '통합방송법 제정'과 '신문개혁 운동'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05년 2월 문화방송 사장으로 취임하여 정치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이루고, 언론 스스로가 '권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2008년 정권 교체 후 여당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미디어 관련법 (이하 '미디어법')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제18대 국회의원인 수상자는 현행법 아래서도 신문사·대기업·외국자본은 방송의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법안 개정의 핵심은 '보도 관련 규제의 완화'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령 개정의 종합적·입체적·순차적으로 접근하자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올해 7월 22일 여당 주도로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후 국회 밖에서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민주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언론에 관한 정책과 관련 산업을 재편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의 지지서명을 받고, 고통을 참으며 이만 배를 하는 등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96년부터 'SBS'의 프로듀서로서 <그것이 알고 싶다>·<세븐데이즈>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04년 12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했고, 민영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수상자는 전국언론노조 활동을 통해 언론개혁 활동에 참여했고, 2007년 9월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어려움에 처한 노조를 수습하며 정부·여당의 언론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섭니다.

“거대 기업이 미디어그룹을 소유하면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기 시작해 뉴스가 보수화되고 공공성이 약해지며, 지역언론은 위축되고 언론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크게 후퇴할 수 있으며, ‘신문·방송 겸영’으로 인해 ‘여론 다양성’이 약화되는 한편 보수적인 여론의 지배력이 높아지고 ‘정치와 언론’이 유착되는 폐해가 우려된다”는 소신을 가진 수상자는 ‘언론의 공공성’을 앞세우며 정책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수상자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작년 7월에는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삼보일배를 했고, 08년 12월 26일부터 09년 1월 7일까지 언론노조의 대규모 총파업을 주도하여 개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올해 7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수상자는 ‘투표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언론·시민단체·야당과 함께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시민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7월 27일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된 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10월 29일에는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결과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했으며, 판결 이후 11월 4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수상자는 언론이 사회구성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영역’이며, 대중의 무관심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활동은 언론노조 위원장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수상자의 굳은 신념과 값진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수상자는 미디어의 본질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디어법’을 반대하며 개인에게 닥치는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자세가 민주언론과 독립언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송건호 선생의 정신과 맞다고 판단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최문순 의원과 최상재 위원장은 ‘자유언론 수호는 자신의 사명이라는 주체적 자각’과 ‘스스로를 희생하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원론적이지만 어려운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제8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원	정경희	언론인
위원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
위원	방정배	성균관대 교수
위원	김현주	한국방송학회장
위원	원용진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수상자 소개

최문순 국회의원

1956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별명이 감자였고, 얼굴이 까맣다고 굴뚝새라고 불리기도 했다. 군인이던 아버지 아래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두 명의 강도가 들면서 불행이 시작 되었다. 총격전을 벌이다가 한 명을 사살한 아버지가 충격에 빠져 마음 고생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 나갔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스스로 잘못된 영어교육의 피해자라고 여기는 수상자는 외국인이 영어로 말 걸까 봐 피하는 '공포증'을 갖고 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대비해 방송사가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하는 바람에 삼백 명이 넘는 동기와 함께 운 좋게 84년 문화방송에 입사했다. 엄격한 언론 통제 아래서 진실을 보도할 수 없었던 시대를 살면서 시위 현장에 취재를 가면 학생들로부터 돌팔매를 맞거나 야유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과 심한 갈등 속에 술을 많이 마셨다.

사회부에서 <카메라 출동>을 맡아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고발하며 시청자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 주다가 어느새 유명 기자가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언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노조가 결성되자 언론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95년에는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으로 사장 퇴진을 위해 파업을 주도하다가 해직돼 이듬해 복직했으며, 98년 전국언론노조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서 특유의 친화력과 독심으로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출범하는 데 산파 역할을 했고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2005년 부장에서 방송사 사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된 후,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고 또한 방송이 스스로 권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넓은 사장 실과 큰 승용차가 어색했던 수상자에게 사장의 길은 쉽지 않았다. 때마침 생긴 대형사고와 황우석 교수 사태로 큰 홍역을 겪었지만, 2006년 월드컵 방송과 <주몽>, <무한도전>, <황금어장>, <휴먼다큐 사랑> 등을 성공시켰다.

08년 2월 29일 사장 퇴임 후 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하여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에서 언론과 방송 전문가로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에 입문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서

를 제출하고 거리에서 고난을 감수하며 반대에 앞장 서, 국회진출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기 위한 수단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 동안 방송문화진흥대상,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 한국방송대상 보도기자상, 안중필 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문화방송 드라마 인물 삼순, 금순과 더불어 '문순씨'로 불리길 원하는 수상자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손 내미는 평범한 이웃 아저씨가 되고자 한다.

수상자 소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1961년에 태어나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였고 96년 SBS에 프로듀서로 입사한 후 <그것이 알고 싶다> <세븐데이즈>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SBS PD협회 회장, 공정방송위원회 간사, SBS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04년 12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05년 1월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였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민영방송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공익성을 앞세웠다.

2005년 7월에는 언론노조의 신문개혁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왜곡된 신문판매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역설했다.

2006년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의 인사개입에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시사저널 경영진이 인쇄 직전에 삭제하면서 촉발된 시사저널 파업·직장폐쇄 사태'를 계기로 언론노조는 시사저널 기사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고, 수상자는 이에 동참하여 언론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편집권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

2007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전 사무처 직원의 조합비 횡령 등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위기를 겪자 2007년 9월부터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사태를 수습하였다.

08년 1월에는 삼성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이 장기화 되자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규탄과 대응에 나섰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언론기관장을 교체하고 미디어 산업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하여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하자, 언론노조는 이러한 시도를 언론자유와 다양성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08년 7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규탄하는 경고파업 집회'를 이끌었다.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파업에 나서며>라는 제목의 파업투쟁 결의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 예속 되는 점, KBS 김금수 이사장 사퇴에 이은 정연주 사장 사퇴 압력, KBS 신태섭 이사직 박탈, <PD수첩> 검찰조사와 방송통신심의위 징계, 방송법 시행령 개악 등 현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을 언급하며 언론자유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비판하였다.

08년 12월 26일부터 09년 1월 7일까지 언론노조는 언론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총파업을 실시하여 개정을 중단시켰다. 여야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뼈대로 한 신문·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5개 언론법안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고,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은 8일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자, 7월 17일 국회 앞에서 폭우 속에 수상자는 언론노조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며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막으려 했다.

7월 22일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최 위원장은 "1차 투표에서 방송법이 부결됐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다시 재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원천무효이며 방송법은 분명한 불법임을 선언한다"고 밝힌 후, 언론노조는 언론·시민단체와 야4당으로 구성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언론장악 저지 100일 행동'에 돌입하여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시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7월 27일 수상자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10월 29일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결과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했고, 11월 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수상자는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언론의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금년 10월 제15회 안중필 자유언론상, 11월 제15회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

축사 - 고광헌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청암 선생의 유지를 기리면서

이상희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여러 심사위원님, 청암 선생님의 유족 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어 송건호 언론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송건호 언론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신 최문순 국회의원님과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8 회째를 맞는 송건호 언론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자유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고 청암 송건호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한 상입니다. 이 땅의 민주언론운동과 그 결실의 하나인 한겨레는 청암 선생께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아마 청암 선생이 없었다면 한겨레신문 창간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6 월 항쟁 직후 언론자유를 갈망하던 많은 사람들은 참언론 하나 만들어 보자는 청암의 말에 다니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한겨레 사원이 됐고, 어렵게 부어가던 적금을 꺼거나 빈약한 주머니를 털어 한겨레 주주가 됐습니다. 그들이 앞뒤 재지 않고 한겨레 깃발 아래 모여든 것은 청암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생은 동아일보 편집국장 재직 당시 130 여명의 젊은 기자들이 독재와 타협한 사주에 의해 무더기로 해직돼 거리로 쫓겨나가게 되자,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뒤 생활고와 공안당국의 감시, 핍박이 뒤따랐지만, 굽히지 않고 해직 언론인들과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해 자유언론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언론의 정도를 깨끗하게 걸어온 청암 선생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문에 대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되신 두 분 수상자는 이와 같은 청암의 자유언론, 민주언론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문화방송노조위원장과 언론노조위원장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 통합방송법 제정 및 신문개혁운동에 앞장섰으며, 문화방송 사장이 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뒤 국회의원이 돼서는 족벌언론의 방송 장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미디어관련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여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 시킨 데 항의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국회 밖에서 법 통과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최상재 위원장은 서울방송 노조위원장으로 민영방송의 공익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7년 언론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시도에 결연히 맞서왔습니다. 정부가 미디어 산업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는데 언론노조의 총파업으로 대항했고, 미디어법이 통과된 뒤에는 단식농성과 1만 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활동은 최 위원장이 언론노조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굳은 신념과 실천 의지가 없이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두 분을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 드리며,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두 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 정동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언론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신 최문순의원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이번에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것은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고무하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자본권력으로부터는 도전을 받아왔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는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 우리 국민들과 선배 언론인들이 피눈물로 이룩한 언론자유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도처에서 상식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수구언론과 재벌 손에 방승까지 쥐어주기 위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온갖 무리수를 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언론악법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생명인 여론 다양성은 사라지고 권력과 재벌의 목소리만 확산될 것입니다. 참으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언론악법 저지투쟁의 최일선에서 온몸을 던져 투쟁하고 계시는 두 분을 송건호언론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시의에 맞는 적절한 선정이라고 봅니다.

최문순의원은 국회의원직까지 내던지고 언론악법 저지투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촛불시민 네티즌들과 하나가 돼 길거리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의원의 살신성인의 자세는 정치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야당의원들이 최의원 같은 자세로 투쟁했다면 언론악법은 발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출범시킨 산파역으로 초대 언론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언론운동의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최상재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언론운동의 중심인 언론노조를 헌신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삼보일배에 나서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만 배를 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등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 언론자유 수호투쟁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악법 폐기는 최위원장이 이끄는 언론노조의 투쟁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위원장의 리더십과 헌신적 자세는 언론노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언론인의 사표이신 송건호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리는 송건호언론상을 공동수상하신 것은 두 분의 투쟁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건투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청암재단 여러분과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건호선생님의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

수상의 의미를 결코 작지 않게 간직하겠습니다

황망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언론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여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상을 받는다는 것이 우선 황망합니다. 또 언론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이 언론상을, 그것도 가장 권위 있는 언론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송건호 선생님의 유지에 흠을 남기는 것이 아닌 지 몹시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 가지는 권위를 누리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히 더 열심히 언론 자유를 지켜내라는 격려로 여겨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진행된 일련의 언론 탄압과 언론 관련법 제정 과정은 자못 충격적이었습니다. KBS 에서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임한 일, MBC 의 PD 수첩 제작진을 검찰이 체포하고 수사한 일, YTN 에 언론 특보 출신 사장을 임명하고 이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6 명이나 해고한 일, 미네르바라는 평범한 인터넷 논객을 인터넷 상의 표현만으로 구속한 일 등등은 언론자유에 대한 야만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또 특정 신문에 특정 방송을 허가하려는 특수 목적의 법률을 청와대의 지시로 국회에서 강제로 의결하여 편향적 언론 체제를 영구적으로 구축하려 한 시도는 언론 파괴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퇴행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무도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KBS 등 이명박 정부가 언론에 가한 탄압 사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절차는 물론 내용도 잘못되었으니 시정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언론계, 시민 사회로부터 언론 파괴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KBS 사장 선임 사례에서 보듯이 또 다른 언론 파괴를 주저함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YTN 기자들에 대한 복직 판결은 거부당했고 MBC 와 인터넷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요하고 또 집요합니다.

재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세력은 명분이나 체면 따위를 돌보지 않는 천한 사적 독재 세력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불행히도 이 세력은 우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언론계에도 이미 크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단순히 정권의 속성에 따른 정치적인 사안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근본주의의 세계체제에서 유래한 공공성의 붕괴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한 언론의 생존위기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언론인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언론 안에 내재된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지향 해야 할 가치와 행동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언론 정신의 고결함을 잃지 않으신 송건호 선생님을 기리며 오늘 수상의 의미를 결코 작지 않게 간직하겠습니다.

수상소감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펜으로 칼을 꺾을 수는 없다

하지만 펜은 어떤 불의에도 맞설 힘을 준다

펜으로 칼을 꺾을 수는 없다

하지만 펜은 어떤 불의에도 맞설 힘을 준다

레온 펠리페의 글에서 노래 대신 펜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닿는다면 빛 바랜 역사책에 적힌,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었던, 칼의 시대입니다.

34년째 거리를 떠돈 노기자(老記者)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을 때 짐작했어야 했습니다.

펜을 판 자들의 매명과 타락이 큰 몫을 했습니다.

펜을 쥔 자들의 오만과 방심이 더 큰 몫을 했습니다.

부복이나 저항이나, 언론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시민들이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홧발과 몽둥이보다 시민들의 눈을 더 두렵게 여긴다면 굳이 옆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면을 비워 신문을 살리고 화면을 비워 방송을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젊은 기자, PD 들이 한숨 대신 감사하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펜과 마이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한자리에 모인 것뿐입니다.

칭찬을 받기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 모이지 못한 것에 대해 꾸지람 들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송건호 선생의 매운 회초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양지 양도록 밝은 등을 달아 주시고 길 위에 소금을 뿌려주신 송건호 선생님과 유족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